



1강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까?

◎말씀 Q.T학교 안내

1. 일 시 : 2021.9.15 ~ 11.11 (매주 수요일)
수요일 오전 11시 / 단톡방에서 영상링크 공개
2. 장 소 : (대면) 6층 고등부실 /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

3. 세부일정

주	날짜	강의내용
1	9/16	오리엔테이션 /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까?
2	9/30	성경 묵상의 3단계
3	10/7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반복해서 읽으라
4	10/14	문맥과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라
5	10/21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목하라
6	10/28	뜻이 분명하지 않은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라
7	11/4	구약과 신약 전체의 관점에서 본문의 뜻을 파악하라
8	11/11	실천의 변수들을 고려하고 체철화될 때까지 실천하라
수료식	12월 예정	양육학교(말씀QT, 기도, 예배) 수료식

◎말씀 Q.T학교 진행 방법

1. 기도학교 기간은 총 8주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10월 3일까지는 유튜브 영상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2. 양육학교의 수료 기준은 총 8주 중 6회 이상 출석입니다.
즉, 결석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3. 말씀 Q.T학교 기간 중에 『매일성경』으로 매일 훈련을 합니다.
4. 매주 강의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 질문 부탁드립니다.



♫ 묵상 전 부르는 찬송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찬송가 637장)

보통으로

주 님 우 리의 마 음 을 여 시 어

말 씬 을 깨 단 게 하 읊 소 서 아 멘

♫ 묵상 후 부르는 찬송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류형선 글·가락)

이 말 씬 따 — 라 사 는 동 안 지 치 지 않 — 게 하 시 고

이 말 씬 따 — 라 사 는 동 안 주 님 나 라 이 루 소 서 —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103)

- ▶ 나는 누구이고, 왜 말씀 Q.T학교를 신청했나요?
또한 말씀 Q.T 학교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 일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했나요?

◎큐티의 의미

1. 큐티의 정의

큐티는 ‘Quiet Time’의 약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스스로’ ‘매일 듣는’ 것을 말한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큐티의 성경적 원리

1) 들으라

신앙생활은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큐티는 내 생각과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핵심을 둔다. 그러므로 큐티할 때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2) 가까이 하라

큐티는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가까이한다는 것은 곧 그 시간을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큐티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2

3)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귀에 그 말씀이 계속 울려야 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6-7

4) 실천하라

성도의 삶은 믿음과 실천이 함께 가야 한다. 큐티를 통해 묵상한 말씀을 하루동안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5) 서로 나누라

소그룹에서 은혜받은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며 서로에게 격려와 힘을 줄 수 있다. 성경에는 깨달음을 전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등장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29

◎큐티의 유익

1. 영적 성장

큐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

2.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

세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터이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큐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20

3. 지혜가 더해감

모든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면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119:99

4. 예수님을 닮아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 큐티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29

5. 영혼의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림

우리가 더욱 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다 시편 107:9

◎어떤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까?

1.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성경 묵상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요 14:26; 16:13).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가장 잘 알겠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시다(고전 2:11).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침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후에 말씀을 삶에 잘 실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2

2. 시편 기자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린다. 그중에 두드러진 것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시 119:27, 34, 125, 144, 169)라는 기도이다. 이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드려야 할 기도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는 말씀도 역시 깨달음을 위한 기도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말씀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8:20

3.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는 분별의 은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딤후 2:15).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고전 2:13-14)한다는 말씀이다.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성령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성령님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16-17

4. 그 다음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한다.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묵상만 즐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약 1:22). 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데 있다. 묵상 자체를 즐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만큼 더 순종의 허리가 굽혀져야 마땅하다.